

일곡지구 상권은 광주 패밀리랜드 입구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용봉IC까지 남-북으로 길게 형성돼 있다. 이렇다보니 행정구역상 북구 일곡동과 삼각동, 오치동, 매곡동, 용봉동 일부 등 5개 동으로 나뉘며 '일곡지구', '매곡삼익', '삼각동(31사단)'의 3개 세부상권으로 분류된다.

10 **광주일보**
제17474호 2006년 6월 15일 목요일

주가 +17.87 1,221.73 (코스피지수)	환율 +0.30 962.00원 (원/달러)	금리 +0.01 4.85% (3년만기 국고채)
코스닥지수	577.35 (+8.71)	
다우(13일)	10,706.14 (-86.44)	
나스닥(13일)	2,072.47 (-18.85)	
닛케이	14,309.56 (+90.96)	
엔-달러 환율(도쿄 17:00기준)	114.95엔 (-0.41)	
유로 달러 환율	1,2567달러 (-0.15)	
3년만기 회사채	5.12% (+0.01)	
물금리	4.21% (보합)	

'에스광주 부동산' 홈페이지 본격 서비스

광주·전남지역 부동산전문사이트인 '에스광주 부동산'이 홈페이지(www.yesgwangju.co.kr)를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.

에스광주는 광주지역 900여개 아파트단지 및 1천여개 원룸 정보를 바탕으로 아파트시세와 매매 정보 등 부동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. 또 지역내 500여명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구축해 부동산 상담 및 방문자들이 올린 매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.

에스광주 관계자는 "이번 홈페이지 개통을 통해 광주지역 내 부동산 정보를 구별, 동별로 자세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"며 "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할인쿠폰을 비롯 다양한 동영상 및 커뮤니티 서비스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"고 말했다. /최정호기자 choice@kwangju.co.kr

중기청, 내일 환경전문인력 화학 교육

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(청장 장순호)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유해물질 환경규제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(사)산학연전국협의회와 공동으로 16일 세미나실에서 환경전문인력 화학분야 교육을 실시한다.

이번 교육은 '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'과 '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', '폐자동차처리지침', '화학물질관리정책' 등 3분야로 구분해 이뤄진다. 문의 (062)360-9160. /이종태기자 itlee@kwangju.co.kr

학원·독서실 등 교육상권 발달 신축아파트 중심 '제2전성기'

일곡지구

상권의 면적은 일곡지구가 44만6천여평으로 가장 넓고 매곡삼익이 31만2천평, 삼각동 상권이 15만2천여평에 달한다.

이 가운데 삼각동 상권이 90년대 초반부터 상권의 모습을 갖춰 한때 이 지역 최고의 상권으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침체된 상태다. 이후 매곡동 삼익3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매곡삼익 상권이 소규모 근린상권으로 활기를 띠었다가 최근 들어 용봉IC 인근에 중대형 아파트 신축으로 제2의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다.

주택가 소규모 근린상권 주류

하지만 이 지역 최대의 상권은 일곡택지지구라는 탄탄한 소비력을 배후에 가진 일곡지구 상권이다. 한국토지공사 시행을 맡아 지난 92년~99년까지 44만6천여평을 개발했으며 99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아파트 입주 시작돼 2001년까지 아파트 1만344가구 등 총 1만1천507가구에 4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.

일곡지구 상권의 특징은 지구내에 만 초등학교 5개교, 중학교 3개교, 고등학교 2개교에 달할 정도로 학교가 운집돼 있다보니 학원과 독서실 등 교

육관련 상권이 발달했다는 점이다. 이렇다보니 토틀 등 유흥업소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고 주택가에 알맞은 근린상권이 주를 이루고 있다.

또 20평~30평형대가 주축을 이루던 초창기와 달리 최근 몇년동안에는

초·중·고 10개교 운집... 담양 인근서 인구 유입 '활기' 양산...연제동 아파트 단지 연계 상권 업그레이드 될 듯

40평~60평형대의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소비층도 30대~40대의 맞벌이 부부에서 50대~60대까지 확대되는 추세다.

상권이 형성된지 5~10년이 지나면서 점포가 포화상태인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최근에는 고소득층이 신규 택지지구로 이사가는 등 탈출현상도 빚어지고 있다.

그러나 북구의 대표적 교육특구답게 담양 등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중산층도 많아 전반적으로는 활성화된 상권을 유지하고 있다.

향후 일곡지구 상권은 최근 들어 인근 양산동과 연제동에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의 연계여부에 따라 한단계 더 도약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.

교육수요를 바탕으로 이곳의 인구

를 끌어들이는 경우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예가다.

◇일곡지구=일곡지구의 핵심상권인 일곡우체국사거리에서 일곡병원사거리를 잇는 지역은 평당 점포 임대료가 1천500만원을 호가하는 곳이 즐비할 정도로 장사가 잘되는 곳이다.

일곡지구 주 진입도로를 따라 양쪽에 자리잡은 상업지역내에는 금융권과 유명 의류 및 제과, 안경 프랜차이즈가 자리잡고 있으며 점포가 밀 경우 들어가려는 대기수요도 많다.

점포임대가 평당 1,500만원 호가

특히 모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하루 평균 매출이 350만원에 달해 전국 매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명하다.

솔로몬 공인중개사 황정인 대표는 "상업지역은 1층을 기준으로 점포 임대료가 평당 1천200~1천700만원에 달하는데도 빈 점포를 구하기 힘들고 이면도로로 들어가도 500~6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상권의 밀집도가 높다"고 말했다.

/정필수기자 bungy@kwangju.co.kr



※ 다음 상권분석은 운남지구입니다